

## 2005년도 사무국장, 복십자의원장 연석회의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10월 8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협회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업별 평가, 사업활성화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등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협회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크리스마스 쉴 모금사업의 내실을 기하기로 하는 등 사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제3회 「폐의 날」 행사 개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송정섭)는 11월 18일(금)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서울 중구 흥인동 소재)에서 제3회 「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개회식과 함께 세계적으로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협적인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폐암보다 고통스러운 COPD”를 주제로 김영환 학회 정보이사의 ‘환자 케이스 발표 및 COPD 가이드라인 소개’ 강의와 심영수 서울대의대 교수(대한결핵협회 부회장)의 COPD 강의를 비롯해 무료검사 및 상담이 이루어진다. 대한결핵협회는 이번 「폐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식 후원한다.

## 미디어에 비친 결핵

“슬며시 번지는 결핵 20~30대 발목 잡는다” 기사 中-

주로 노인층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결핵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20대와 가장 왕성하게 일 할 나

이인 30대 젊은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새로 신고되는 결핵환자는 3만명이 넘고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1만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연령층이 집중적으로 결핵에 걸리는 선진국들과 달리 젊은층이 많이 걸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결핵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젊은층에서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김희진 결핵연구원 기술협력부장은 '전체 인구 가운데 결핵환자수가 선진국과 견줘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공공장소에 노출이 잦은 젊은층의 감염과 발병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한겨레 2005. 10.18. 박주희 기자-

## 통계청 발표(2005. 9.) "2004년도 주요사망원인 통계"에 따른 주요 결핵통계

- 2004년도 결핵으로 2,948명이 사망(호흡기결핵 2,780명/기타결핵 168명)하여 인구10만 명당 6명이 결핵으로 사망
- 인구 10만명당 5.7명이 호흡기결핵으로 사망(남자8.1명/여자3.3명)
- 남자의 경우 호흡기결핵이 사망원인 순위 10위
- 20대 여자층에서 호흡기결핵이 사망원인 순위 7위
- 20~30대층에서 호흡기결핵이 사망원인 순위 9위, 40대 10위, 50대 9위, 60대 10위
- 70대 이상층에서 10위 기록

### 대한결핵협회 독감예방접종 실시



대한결핵협회 각 시도지부 복지지원원은 지역 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단체로서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일반 병·의원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일반성인들을 비롯해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허약체질의 어린이들에게 11월 전에는 접종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원을 환영합니다.